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2022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결과자료집

1.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소개

2. 지역문화예술교육 특성화

01.영유아문화예술교육.....08

- 시작 : 연구소 09

02.어린이문화예술교육.....19

- 마음조각 20
- 느낌의 반딧불 24

03.가족문화예술교육.....29

- 리본 30

04.부평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교육랩.....35

- 예술교육랩 37
- 희율 <똑똑똑! 네 안의 예술가를 깨워라!> 38
- 박현인 <춤으로 놀자 SPLASH! 예술놀이교실> 40
- 보라아트뮤직 <꽃으로 하는 즉흥연주, 플라워잼> ... 42

3.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활성화

01.청소년문화예술교육.....50

- 교육연극 : 슬기로운 학교생활 51

CONTENTS

4. 시민문화예술교육 확대

01. 일상문화예술교육.....58

- 일상 문화예술교육 <배-클라쓰> 59

5.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01. 문화예술교육 협의체.....72

6. 사랑방문화예술교육

01. 공간특화문화예술교육.....78

-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 80
- 몬스터 초등학교 85
- 오감마을 차차차 89
- 팔로잉 말고 드로잉 93
- 수상한 정글 97
- 솟확행 II : 나의 방 101

02.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103

- VR예술과 만나다
: 나만의 가상 정원 만들기 105

7. 지원사업

0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109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110

02.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117

- 어른들의 예술감상 놀이터 <사진 속으로> ... 118

03.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127

- 꿈꾸는 숲 128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소개

비전	삶을 예술로 만드는 문화예술교육
목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추진전략	지역문화예술교육 특성화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시민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예술교육 가치확산
	사랑방 공간특화 문화예술교육
	사랑방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예술교육 특성화

영아

시작 연구소 - 배안에서

유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꿈꾸는 숲**

어린이

어린이 연극학교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계절의 숲으로 간 음악탐사대

가족

가정의달 야외워크숍 **리본**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교육가부평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랩**청소년문화예술교육 특성화**

청소년

교육연극:슬기로운 학교생활**시민문화예술교육 확대**

성인

일상문화예술교육 **B-class**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진 속으로**문화예술교육 가치확산**전문가,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예술단체
및 예술교육가

부평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누구나

부평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빙북

사랑방 공간특화 문화예술교육

어린이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몬스터 초등학교****오감마을 차차차****팔로잉 말고 드로잉****수상한 정글****숫확행 II****사랑방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성인

VR예술과 만나다:나만의 가상정원 만들기

2

지역문화예술교육 특성화

01. 영유아문화예술교육

· 시:작 연구소 - 15~20개월 아기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배 안에서'

사업소개 <시:작 연구소>는 영유아의 문화권리 보장과 문화감수성을 향상 시키고자 지역문화예술교육 단체와 함께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부터 극단 상상이상과 함께 15~20개월 아기와 보호자를 위한 '배 안에서'를 개발하였고, 3년 차를 맞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다. 올해에는 5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아기와 보호자를 만나며 하늘에서 땅의 세상으로 온 아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사업개요

<시:작 연구소 - 15~20개월 아기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배 안에서'>

1기 2022.05.16.~05.25. 월·수·금 15:30~17:00 (총 5회)

2기 2022.10.29.~11.26. 매주(토) 10:30~12:00 (총 5회)

운영장소 부평아트센터 스튜디오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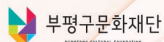
운영대상 15~20개월 아기 및 보호자 14팀(28명)

참가비 50,000원

예술교육가 극단 상상이상(김은미, 오연주, 이상명),
허정희(발도르프교육 전문가)

교육내용 15~20개월 아기의 발달 과정에 맞춘 발도르프 교육학
기반의 연극 놀이로 안전하고 조화로운 공간에서 보호자
와 함께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며 12가지 감각을 경험한다.





영유아 문화예술교육 사:작 연구소

15~20개월 아기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배 안에서

일 정 2022. 5. 16 ~ 5. 25 월·수·금 15:30 (총 5회)
 장 소 부평아트센터 스튜디오A
 대 상 15~20개월 아기 및 보호자(2020. 09.~2021. 02. 출생)
 수 강 료 50,000원 (아기 및 보호자 1인)
 신청방법 2022. 4. 19(화) 10:00부터 부평구문화재단 누리집 선착순 접수
 문 의 032-500-2066



시:작 연구소 - ‘배 안에서’ 교육커리큘럼

교육목표

자연 소재 교구를 활용하여 15~20개월 아기의 12가지 감각을 깨운다.

회차	이야기	12가지 감각 활동
1	보호자교육1 하늘 아이들의 일상1 : 하늘	보호자 교육 : 15-20개월 아기 이해하기 양모공 놀이 : 촉각 및 운동, 균형, 언어감각 경험
2	하늘 아이들의 꿈 : 태몽	실크천 놀이 : 촉각, 시각 및 운동, 균형, 언어감각 경험
3	하늘 아이들의 일상2 : 엄마의 배 안	그림자놀이 : 촉각, 시각 및 운동, 언어, 열감각 경험
4	하늘 아이들의 탄생 : 생일이야기	원목 놀이 : 청각, 촉각, 시각 및 사고감각 경험
5	하늘 아이들과의 만남 : 땅 보호자교육 2	모빌 놀이 : 후각, 촉각 및 운동감각 경험 보호자 교육 : 아기를 존중하며 함께하기



예술교육가 후기

김은미

달달선생님

우리 극단의 이름... 상상이상... 그 이름 덕분인지, 극단의 공동창작으로 태어난 공연 - '베이비씨어터 <배 안에서>'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된 것은 상상이상의 일이었다. 2022년 하반기까지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그동안의 일들이 회고해 보면 정말 상상이상의 일들이 많았다.

극단 상상이상의 첫 걸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해외 역량강화 프로그램 A-Round를 참여했을 당시 우리는 '영유아극'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시작했는데 영유아극이 정말 다방면으로 활성화된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의 예술가들이 영유아를 대하는 태도와 영유아를 맞이하는 과정을 듣고 보면서 감동받아 공연이 탄생했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제반을 마련해주는 또 한 번 상상이상의 감사한 기회였다.

영유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도 했고 사뭇 다르기도 했다. 성인이 된 우리는 감각적으로 다른 상태의 아가들과 교감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 선택하기, 어른의 입장이 아닌 진정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예술적인 것을 위한 단순화하기, 실질적인 공간의 안전성과 위생 등을 고려하기 등 그야말로 연령대에 맞는 환경과 발달 과정을 지속적으로 예민하게 고려하고 선택해야 했다. 그래서 강사 경력 19년 차에 들어서는 나에게조차 영유아 문화예술교육 <배 안에서>를 위한 준비와 노동력 그리고 세밀함은 과히 상상이상이었다.

그러나 정말 상상이상의 것들이 있었다. 내가 느낀 바를 글로 쓰기에 능력이 부족함이 한스럽다.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만났던 아가들은



▶ 정말로 상상이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다. 참여한 아가들의 눈빛 그 자체,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과 눈빛과 호흡 소리를 통해 우리는 아가들과 정확한 교감을 할 수 있었고, 아가들이 우리는 알고 있다는 여러 가지 아가들의 신호들, 또 오브제를 통해 아이들의 성향을 알게 되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 생기는 과정, 진행하면서 아가들이 느끼는 행복한 순간... 그것을 친절하게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해주는 그 순간들, 그 순간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혹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것과 상관없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날의 분위기, 그 날 아가들의 표정과 웃음 그리고 웅얼이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것 자체가 상상이상의 것들이었다. 정말 상상이상의 것들이 펼쳐졌고, 앞으로도 상상 이상의 것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벅차도록 기다려진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늘 가슴 속에 있고, 엄마들을, 그리고 아가를 만나는 우리를 살게 한다.



예술교육가 후기

오연주

나무선생님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우리 팀의 베이비 씨어터 <배 안에서>를 영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개발 및 실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듣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2020년이였다. 그때 당시 3년의 계획으로 이야기를 나눴었다. 2020년에는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2022년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눈 깜짝할 새에 예정된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2022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2019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A-round 프로젝트를 통해 베이비 씨어터 <배 안에서>가 만들어지고, 바로 이어서 부평구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영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배 안에서>로 확장되었다. 많은 분들의 지원과 도움, 애정을 통해 <배 안에서>가 스스로의 생명력을 갖고 태어나 자라났다. 우리 팀이 만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관 관계자, 자문단, 참여자, 그 외의 모든 분들께 기대어 자연스레 만들어졌다고도 할 수 있겠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우리 프로그램은 많은 참여자를 받지도 않고 재료비도 많이 든다. 정량적인 평가로는 최하의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한다. 모든 것이 수치로 계산되어 평가받는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참으로 서툰고 부족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현장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의 교육관이 바뀌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한다.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그것이 부모라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수치화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이 변화들을 믿고 지원해 주신 부평구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공연에서는 아이들을 한 번밖에 만나지 못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문화예술교육으로 다섯 번을 만나며 훨씬 더 ‘아기라는 세계’를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해갈 수 있었다. 다섯 번의 만남 속에서도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쑥쑥 자라나 나를 감동시켰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아기라는 세계’. 그 세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받아준 아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이 경이로운 세계를 즐겁게 탐험해 가고 싶다.

<배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예술가라는 직업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다. 이제 막 하늘에서 땅의 세상으로 내려온 우리 하늘 아이들이 땅의 아이들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예술가는 그중에서도 ‘아름다움’을 통해 느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돕는 사람 아닐까.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너희들을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하고 사랑한다고. 저절로 소명의식이 생긴다. 예술가로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 참으로 행복하다.



예술교육가 후기

이상명

사과선생님

2021년에 이어서 2022년 상·하반기 부평 시작연구소를 통해 부모와 영아들을 만나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리 상반기에는 기존의 방법대로 2주 동안 5회차 오후에, 하반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에 5회차를 오전에 진행하였다. 시기를 달리함으로 조금은 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들에 한 번씩 만났을 때는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집약적으로 전달되는 반면 주말 마다의 진행에는 조금은 분산되는 듯 하나 그 나름의 분위기가 형성됨을 느꼈다.

영아들은 프로그램 중 나오는 오브제들 중에 양모공을 가장 흥미있어 한다. 조금만 건드려도 동글동글 굴러가는 공이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1회차 때의 놀이시간에 아이들이 대부분 몰입해 있는 게 관찰된다. 2회차에 나오는 실크천은 복불복이다. 좋아하는 아이와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나뉜다. ‘촉각’과 관련되어 있다. 천이 닿는 걸 싫어하는 아이는 늘 있다. 2회차 놀이 진행이 그래서 좀 어렵다. 아이들이 함께 흥미 있어 하면 좋을 텐데 양모공과 달리 호불호가 나뉘지기 때문이다. 3회차 그림자 놀이를 할 때는 고요하다. 불이 꺼지고 불빛이 흔들거리고 하피드럼 소리가 공간을 채운다. 부모와 아이가 어느 차시보다 더 활발하게 놀이하는 시간이다. 엄마가 비취준 불빛에 만들어진 상을 관찰하고 오브제를 탐색한다. 4회차에는 아이들이 생일축하 오브제가 궁금해서 만지고 싶어 꿈틀꿈틀 거린다. 그 시간을 인내하고 나면 신나게 나무토막으로 놀 수 있다. 5회차는 가장 안정적인 회차다. 1회차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에 부모-아이 모두 분위기에 적응되었기 때문이다. 자연물 오브제로 다양한 소리를 내고 만지는 등등. 이제 막 적응했다 싶었는데 프로그램이 끝난다. 그래서 5회차가 좀 아쉽다. 더 늘려야 하나?



▶ <배 안에서> 프로그램을 접하는 부모들은 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 다른 분위기에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이내 고요하고 뭔가 다른 느낌의 우리 프로그램에 적응한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분명히 부모들에게 긴 여운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프로그램에서의 메시지, 오브제 모두 예술가들의 피땀이 서려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진행자에게도 따뜻함을 주었다. 아기들만이 줄 수 있는 깨끗함과 부모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오는 따뜻함 말이다. 그것을 받을 수 있었다.

흔히들 말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미적 체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진행자와 참여자의 따뜻한 만남인듯하다. 상·하반기 따뜻하고 좋았다.



02. 어린이문화예술교육

- 마음조각
- 느낌의 반딧불

사업소개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연극 학교>가 대표적이다. <어린이연극학교> 프로그램은 재단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부평구문화재단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자연스레 과정 중심 드라마 형태의 연극 놀이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고, 2022년도 <어린이 연극학교> 역시 동일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통해 어린이의 감정과 감각에 대해 들여다보고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알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사업개요

상반기 <마음조각>

2022.03.26.~04.30. 매주 토요일 09:30~12:30 (총6회)

운영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
운영대상	초등3~4학년 15명
참가비	100,000원
예술교육가	강경선, 김인혜, 이현수
교육내용	감정에 대한 한 편의 이야기를 연극적으로 경험하는 과정 드라마이다. 아이들은 탐험대가 되어 잃어버린 마음 조각을 되찾아 마음조각 퍼즐을 맞춰 나간다. 아이들은 탐험과정 속에서 본인의 감정을 보는 체험을 하게 된다.

하반기 <느낌의 반딧불>

2022.10.15.~11.26. 매주 토요일 09:30~12:30 (총7회)

운영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
운영대상	초등1~2학년 15명
참가비	100,000원
예술교육가	강경선, 김인혜, 이현수
교육내용	감각과 감정으로의 탐험을 담은 과정 드라마이다. 아이들은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감각을 되찾아주고, 폭발해 버린 분노의 행성을 구하는 등의 활약을 통해 자신의 감각을 깨우고 마음속 감정을 꺼내봄으로써 느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상상의 시간을 갖는다.

마음조각

초등
3~4학년

2022 어린이연극학교



03.26~04.30 매주 토요일
10:00~12:30 (총 6회)

상반기 ‘마음조각’ 교육커리큘럼

교육주제

감각과 감정 들여다보기

교육소개

감정을 주제로 한 한 편의 이야기를 연극적으로 경험하는 과정 드라마이다. 아이들은 탐험대가 되어 주인공이 잃어버린 마음 조각을 되찾아 마음 조각 퍼즐을 맞춰 나간다. 아이들은 탐험을 하는 동안 타인과 자신의 감정을 보는 체험을 한다.

교육목표

- 극 속의 인물과 비언어적인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보는 힘 기르기
- 나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과 교감하면서 공감의 경험하기
- 아이들의 생각이 이야기에 반영됨으로써 상상력 자극하기



회차	회차	주제 · 키워드	제목 · 활동내용
탐험대 모집	1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이야기 속으로! 1. 프로그램 안내 및 공지 사항 2. 공동체 놀이 3. 나를 소개하는 카드 & 서로 알기 4. 공간 탐험과 규칙 공유하기
	2	마음 헤아리기	탐험대 결성 - 부서진 마음 조각을 찾아서 1. 주어진 단서로 인물을 상상하고 구축하기 2. 인물과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으로 대화하기 3. 인물의 부서진 마음 조각을 찾는 탐험대 결성
	3	걱정과 환기	마음 조각 1 - 걱정 많은 철학자 1. 걱정을 부채바람으로 날려 보내는 철학자 2. 아이들이 각자의 걱정을 말하며 대화 나눔 3. 걱정을 날려버리는 다른 방법 찾고 함께 해보기
마음 조각 완성	4	기억과 감정	마음 조각 2 - 오색빛깔 기억 수집가 1. 기억수집가가 알려주는 기억 이야기 2. 기억을 추상화로 표현하고 기억의 공간 만들기 3. 공간을 관람하며 기억 읽어주고 인터뷰하기
	5	감정과 상상	마음 조각 3 - 외로운 배우 1. 외로운 배우의 가면 연기 2. 아이들이 쓰는 감정에 대한 짧은 희곡 3. 희곡으로 연기를 연습해서 보여주기
	6	내게 소중한 것	마음 조각 완성 - 바쁜 사람이 버린 마음 조각들 1. 바쁜 사람과의 만남, 나에게 소중한 것 2. 마음 조각 완성 - 프시케의 작별 인사 3. 탐험대 해산



교육대상

초등 1~2학년 15명

교육일정

2022년 10월 15일(토)~11월 26일(토)

매주 토요일 10:00~12:00

교육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다목적홀

교육비

100,000원

(재료비 포함)

교육신청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10:00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pcf.or.kr

선착순 접수

문의

032-500-2063

교육신청



느낌의

2022 하반기 어린이연구학교
〈느낌의 반딧불〉 참여자 모집

반딧불



하반기 ‘느낌의 반딧불’ 교육커리큘럼

교육주제

타인의 감정을 통해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교육소개

“감각과 감정으로의 탐험”을 담은 과정 드라마이다. 아이들은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감각을 되찾아주고 폭발해 버린 분노의 형성을 구하는 등의 활약을 통해 자신의 감각을 깨우고 마음 속 감정을 꺼내본다.

교육목표

- 감각을 섬세하게 느끼고 이를 다양한 예술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
- 감정을 언어화하기, 추상화하기, 연극적으로 표현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공감하기
- 모든 감각과 감정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고 이러한 감각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할지 스스로 판단, 결정하도록 하기



회차	회차	주제 · 키워드	제목 · 활동내용
탐험대 모집	1	함께할 사람들 그리고 공간과 친해지기	여행 준비 - 탐험대원 모여라 1. 탐험 대원 되기 2. 탐험 수첩, 탐험 대원 알기 3. 공간 둘러보고 규칙 공유하기
감각 나라 탐험	2	이야기 속 인물을 통해 감각 읽기	감각 나라 1 - 잃어버린 느낌을 찾아서 1. 연극 속으로 2. 눈빛 나라- 소리 나라- 말의 나라 3. 감각 나라 탐험 수첩
	3	느낌을 그림과 몸으로 표현하기	감각 나라 2 - 느낌을 마음껏 표현하자 1. 느끼는 대로 2. 잃어버린 느낌책 만들기 3. 움직이는 느낌책 만들기
	4	마을 산책 하며 감각 깨우기	감각 나라 3 - 느낌을 활짝 열자 1. 마을 산책 준비 2. 마을 산책 : 빛깔 찾기, 소리 듣기, 얼굴 만들기 3. 공동체 놀이
감정행성 탐험	5	슬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기	감정 행성 1 - 눈물 주르륵 행성 1. 눈물 방울 표 '슬픔의 기억' 2. 모둠별로 환상의 연극 만들기 3. 눈물 주르륵 행성에서 환상의 연극 하기
	6	분노의 감정 들여다보기	감정 행성 2 - 붉으락 푸르락 행성 1. 붉으락과 푸르락의 요청 2. 각 모둠 행성 꾸미고 탐험하기 3. 화를 푸는 나만의 방법 공유하기
	7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	감정 행성 3 - 함께 떠나는 여행, 외로움의 별 1. 가족과 함께 하는 워크숍 : 공동체 놀이 2. 연극 속으로 : 외로움 이야기와 장면 3. 영상 관람과 수료증 수여



예술교육가 후기

이현수

예술강사 상자

가족과 함께 ‘외로움’ 감정을 탐험하는 날이었다. 한 아이가 “나는 외동이라서 외로울 때가 많아요.”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해가 갈수록 외동인 아이, 바쁜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탐험이 끝나고 부모님이 적은 외로움, 아이가 적은 외로움을 서로 확인하는 모습을 봤다. 한 어머니는 “외로울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한 아이는 “나는 외로울 때가 너무 많아서 적을 수가 없다.”고 쓰고 벽돌 담장 앞에 웅크린 모습을 그렸다. 이걸 본 아이의 부모님께서 좀 놀라시며 “외로웠던 순간 한 가지만 말해 줄 수 있니?”라고 아이에게 물었다.

일곱 번의 만남으로 많은 변화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친구와 관계 맺고 함께 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느끼는 씨앗이 되었으면, 서로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는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술교육가 후기

강경선

예술강사 강경

연극놀이는 공동의 예술활동으로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참여 어린이 모두가 이야기를 상상하고 공동의 합의 과정을 거쳐서 극적 세계를 만들어나갑니다. 우리는 2차시에 여러 안건 중에 ‘마음조각탐험대’라는 이름을 짓고 매 회차 극적 시공간 속으로 들어가 탐험대원 역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로 활약하였습니다. 오색빛깔 수집가, 걱정많은 철학자 등 호기심을 자아내는 인물을 만나 극적 상황과 감정을 헤아려 보기도 하고, 일상의 물건을 변형하기도 하고, 참여자간의 협동으로 장면도 만드는 등 역할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그 순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살아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극속 인물인 프시케와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눈빛을 도구로 비언어적인 대화를 하였습니다. 프시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현재의 마음은 어떤지 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화를 하다보니 타인의 감정을 더욱 귀기울여 들여다보았습니다. 극적 물입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참여 어린이들마다 극적 물입이 되는 시점은 달랐지만 하나의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극적 세계를 옆 친구가 기꺼이 믿고 역할을 입으면 다른 참여자도 기꺼이 극 속 이야기를 몰입하여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어?”, “힘을 보태줄게” “대체 어찌다 잃어버린거야?” 라는 진실된 감각과 감정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에 어울리는 악기연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안전한 허구의 세계 속에 마음껏 필요한 역할로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드러내며 서로 창조적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 특히 본 프로그램은 한 인물이 겪는 사건을 회차별로 실마리를 찾아가면 이야기 구조를 엮어내는 과정드라마로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완성되는 참여예술활동입니다. 차시별로 흩어진 마음조각을 찾으러 모험을 떠나고 극적 인물을 만나 연극적 활동을 하고 나면 마음조각의 일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마지막 차시가 되면 아이들은 매 회차 모은 조각의 퍼즐을 완성하여 전 차시의 이야기를 재통합하는 기쁨과 극적 갈등을 해결하는 공동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번 경험이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던 상상의 세계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치~처럼으로 보는 심미적, 감각적 반응으로 살아냈고, 만약~라면으로 펼쳐는 연극적 상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여어린이가 발휘했던 협력과 자발적 힘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다양한 현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주체성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은 어린이의 연극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극놀이 리더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3. 가족문화예술교육

• 리본

사업소개 2022년 부평구문화재단 가족 문화예술교육은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처음 운영하였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사람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지속된 비대면 시대에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한 야외 가족 워크숍 형태로 가족 문화예술교육을 준비하였다. <리본>은 인천문화재단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만들어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예술이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체험해봄으로써 어렵게만 느껴졌던 예술을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느끼고 체험 할 수 있도록 리본으로 작품을 만들어보고 설명하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이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히 모객이 어려운 초등 5~6학년생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가족간에 문화예술교육을 함께 체험 할 수 있는 워크숍으로 운영하였다.

사업개요

<리본>

2022.05.14.(토) 10:00~12:30

2022.05.21.(토) 10:00~12:30

운영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오픈스페이스, 뒷마당

운영대상 초등 5~6학년을 포함한 가족 30팀(회차별 15팀)

참가비 가족당 20,000원

예술교육가 프로젝트 아하(강경선, 김인혜, 이현수, 정지연, 한송희)

교육내용 <리본>은 장기화된 코로나 시대에 가족과 함께 안전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상공간이 리본작업을 통해 새로운 예술공간으로 바뀌는 체험으로 창의성을 기르고 가족들과 소통하는 예술융합 프로그램이다.



5월 가정의 달
야외 가족 워크숍

리본

“창의성은 사물을
연결시키는 능력이다”

-스티브 잡스-

??



코로나 시대, 온라인을 벗어나 자연에서 직접 몸을 움직이며
고정관념을 깨보는 **1일 예술워크숍** "예술은 무엇일까?"
리본으로 만들어보는 예술세계로 초대합니다.

일 시 1회) 2022. 5. 14 (토) 10:00 ~ 12:30 (15팀)

2회) 2022. 5. 21 (토) 10:00 ~ 12:30 (15팀)

대 상 초등5~6학년을 포함한 가족 30팀(회차별 15팀, 한 가족 당 최대3명)

장 소 부평생활문화센터 뒷마당, 오픈스페이스

참가비 가족당 20,000원

문 의 032-500-2063



"리본"은 <2020년 인천문화재단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코로나 환경 대응 운동장 거리두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아이'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부평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부평아트센터
BUPYEONG ART CENTER

〈리본〉 교육커리큘럼

구분	제목	목표
1부 (실내)	공동체 놀이	몸과 마음 열고 인사하기
	활동 준비	낯선 예술 작품을 보고 질문하기 예술에 대한 의문 품기
2부 (실외)	작업	각자 맡은 사물을 파란 리본으로 작업하기
	감상	작품들 사이를 산책하며 입체적으로 작품 감상하기
	해체	자기 작품 해체하고 자연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3부 (실내)	돌아보기	활동 돌아보고 예술에 대해 스스로 답하기



예술교육가 후기

조원석

‘프로젝트 아하’ 작가

많은 학자들이 말하길,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 중 대표적인 것이 ‘창의성’과 ‘정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소양으로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리본’ 프로그램은 ‘창의성’과 ‘정서’에 초점을 맞춘 예술 융합 프로그램입니다.

‘창의성’은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차는 증기기관과 마차가 연결된 것이고, 나йки 운동화는 와플 기계와 신발의 연결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물 간의 연결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적 고착화로 인한 고정 관념입니다. 기능적 고착화란 ‘사물의 용도에 대한 사전 인식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 칼 던커’입니다.

‘리본’ 프로그램은 기능적 고착화를 깨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상공간은 캔버스가 되고 리본은 물감이라는 새로운 용도로 재탄생됩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혼자 하는 즐거움’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고안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행위는 정서적인 힘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리본’은 혼자서 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의 다른 사람의 작품과 이어지기도 하고, 멀리서 보면 하나의 큰 작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연말리기와 비슷합니다. 각자의 연을 날리고 있지만, 옆에서 친구들과 같이 연을 날리면, 함께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축제나 잔치가 주는 느낌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들에게 ‘리본’이 잔치 같은 즐거움을 주고, 그곳에서 기능적 고착화를 깨는 배움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술교육가 후기**강강**

‘프로젝트 아하’ 예술강사

‘새싹의 힘’, ‘바람 길’, ‘너와 나’ 등 참여자들이 작업 후 붙인 제목들이 시였습니다. 파란 리본을 나무와 나무에 마음 가는 대로 덧입히다 보니 어느새 보이지 않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마노

‘프로젝트 아하’ 예술강사

몰입의 즐거움이 가득한, 따로 인 듯 함께한, 예술이란 무엇일까 문득 궁금해지는 봄날의 기억.

쑹쑹

‘프로젝트 아하’ 예술강사

초록빛 가득했던 5월의 주말, 따로 또 같이 참여한 리본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한 가족들의 삶에 ‘예술’이라는 파란 책갈피가 남겨졌기를 소망합니다.

다다

‘프로젝트 아하’ 예술강사

가지와 가지, 나무와 나무, 마음과 마음을 이어 신기루처럼 초록을 파란리본으로 물들였던 시간... 그 시간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음으로 잘 담아내려 집중했던 짧은 시간 동안 참여자의 세심한 손끝, 고민하던 눈동자들을 더 깊이 볼 수 있어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04. 부평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교육랩

- 똑똑똑! 내 안의 예술가를 깨워라!
- 춤으로 놀자 SPLASH! 예술놀이교실
- 꽃으로 하는 즉흥연주, 플라워잼

사업소개 부평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교육랩>은 부평구문화재단이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예술교육으로 지역문화 자치분권을 실천하기 위해 중앙에서 광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로 이관되어서 지역자체 기획형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제는 광역보다 더 작은 단위인 기초단위에서 시민과 밀착한 문화예술교육이 실천되어야 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단체나 예술가, 예술강사가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연구·개발하여 나온 기획안들을 시범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예술교육랩>사업은 11개 단체 및 그룹이 지원하였고 최종 지원하였고, 특히 이번에는 문화예술교육에 첫발을 내딛는 지역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에 초점을 두고 최종 3개 단체를 선정하여서 부평의 지역 특성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2022 부평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교육랩

| 공모기간

2022.04.05.(화)
~ 04.29.(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공모자격

지역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2인 이상 그룹
(지역문화예술인, 문화기획자,
예술교육가 등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자)

| 공모내용

부평의 특성(문화, 환경, 공간, 삶 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 지원규모

총10,000천원
(2~3개팀 내외,
1개 팀 3,000~5,000천원 지원)

| 문의

부평구문화재단
지역문화팀 032-500-2063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역을 면밀히 연구하고, 이를 교육으로 개발하고
운영해 부평의 풍부한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등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예술교육랩>

2022.03.~12.

사업대상	지역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2인 이상 그룹
지원규모	총 지원금 10,000천원, 단체당 3,000~5,000천원 내외
추진방향	부평 지역의 특성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고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시범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운영해 봄으로써 지역에서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 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선정단체	희울(동현정, 변새롬, 박혜원) 박현인(박현인, 김옥동, 장지훈, 김준일) 보라아트뮤직(배애령, 최인실, 박담은)



희움 <똑똑똑! 네 안의 예술가를 깨워라!> 교육커리큘럼



교육내용

부평 내 단기일시쉼터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만의 터전, 공간을 만드는 미술교육활동을 통해 시각적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각적 문해력 향상과 건강한 자아 형성, 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구분	회차	제목 · 키워드	활동내용
오리엔테이션	1	똑똑똑! 너의 마음을 보여줘!	준비 : 수업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 보드에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발표 (예: 꿀벌 - 저는 부지런해요) 수업 : 재료, 기법, 방법의 다양성 소개 작업 과정 설명 휴식 작품 제작 : 주제 - '나의 터전' 드로잉 복에 발상 정리, 준비 된 재료들을 사용해 각자 자유롭게 박스 꾸미기, 완성된 상자는 한 곳에 모아 진열 마무리 감상, 이야기 나누기 재료 정리



**박현인 <춤으로 놀자 SPLASH! 예술놀이교실>
교육커리큘럼**



교육내용

초등학교 3~6학년 대상으로 다양한 놀이와 스트릿댄스, 현대무용을 연계하여서 아이들에게 몸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동시에 사회성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구분	회차	제목 · 키워드	활동내용
오리엔테이션	1	춤으로 맺어진 인연, 너도 나도 친구	프로그램 소개 아이스브레이킹 스트리트댄스 역사 교실 강사진 프리스타일(개인기: 하우스/힙합/코레오그래피) 거울놀이(2인 1조로 상대방의 동작을 따라하기) 징검다리놀이(발판마다 수행해야 되는 동작을 지정)
신체 표현하기	2	무궁무진한 나의 가능성!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원을 만들어 서로의 집을 차지하는 경쟁 게임) 춤으로 하는 눈치게임 노른자 놀이: 동작을 맞추어보자! 동작 이어가기 게임(안무구성 훈련)
춤을 만들어보기	3	창의력 총동원!	동작 이어가기 게임(춤으로 스토리텔링) 얼음땀 놀이 (각 영역마다 하나의 춤 동작 을 지정, 그 동작으로만 얼음!) 안마 해주기 그룹을 지어 안무 구성하기(강사님과 함께)
즐거운 신체활동	4	내가 만든 춤에 SPLASH 하고 말걸!	웃놀이 게임 몸으로 말해요 놀이 2~3주차 때 연습한 내용을 그룹별로 강사님의 지도 하에 연습 후 촬영(핸드폰) 4주간의 수업을 하며 느낀 점 말해보기



**보라아트뮤직 <꽃으로 하는 즉흥연주, 물라워잼>
교육커리큘럼**



교육내용

초등학교 1~2학년을 포함한 가족 대상으로 코로나시대에 살면서 둔해진 감각들을 음악을 통해서 깨우고, 가족과 함께 음악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교육을 통해서 가족 간의 화합과 부모와 아이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회차	제목 · 키워드	활동내용
1	꽃으로 하는 즉흥연주, 플라워 잼 (Flower Jam)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자기소개 잼(Jam) 소개 및 꽃 소개 플라워잼(Flower Jam) 방식 소개 및 예시 시연 플라워잼(Flower Jam) 마무리: 작품 감상하며 음악 듣기



똑똑똑!**네 안의 예술가를 깨워라!****예술교육가 후기****동원정**

희을 대표

새로운 교육대상과 미술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단기 쉼터 아이들과의 만남, 김다운 선생님, 오창근 교수님의 컨설팅으로 저의 협소한 경험과 사고방식의 틀이 넓어졌고 부족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단기 쉼터 아이들에게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을 주고 미술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 자체가 보람됩니다.

하늘목장에서는 예술교사가 없어 공예 외에 예술 교육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김다운)께서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설문 조사에 아이들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고, 생각할 수 있어 좋았다는 후기를 써주었는데 예술의 따뜻한 생명력이 전달된 것 같아 기쁩니다.

활동지 활동 연계를 좀 더 꼼꼼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뭔가 수업이 거칠고 서툴렀다 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떻게 바뀌어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1회차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관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울팀 예술교육가 후기

박혜원

희울팀 예술강사

컨설팅은 매우 좋았다. 연구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는 궁금점, 그리고 시범수업 준비 중 걱정되는 점에 대해 단순한 해답에 더불어 그에 대한 정보였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성’을 띄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에 맞추려다 보니 연구 목적이 지역성과 크게 상관이 없음에도 억지로 연계하려다 골머리를 앓았다. 예를 들어, 연구 초기에 우리 팀은 줄 사택, 기후변화 체험관, 역사박물관 등 부평의 문화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각 자원의 특성이 너무 뚜렷하여 그와 연계된 수업을 꾸려봤을 때 프로젝트 중점이 예술교육에서 역사교육, 환경교육 등으로 기울게 되었다. 이는 우리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예술교육)를 흐리는 것يجة 결국 지역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연구에 필요한 경우에 지역 자원을 활용 가능하다는 조건이었다면, 초반에 연구의 방향을 더 자유롭게 열어놓고 여러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변새름

희울팀 예술강사

10년 동안 아동미술 교육을 하면서 많은 경력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특수한 경우의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 감사하고 뜻깊었다. 1회 수업이라 아이들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적어 아쉬웠다. 회 차가 길었다면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한 모습을 보여 작업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

춤으로 놀자 SPLASH!
예술놀이교실
예술교육가 후기

김옥동 · 박현인

예술강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징검다리 게임>, <얼음 땡> 등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상당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였다.

아이들에게 춤 동작들이 어려웠지만 전반적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평이었고, 프로그램 시작 전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통해서 참여자들 스스로가 유연성이 길러졌다고 말하였던게 기억에 남는다.

각종 놀이와 춤동작을 그룹으로 수행하면서 자신감과 사교성이 생겼다고 말한 아이들도 있었다. 다만 강사별 역할 지정이 불명확했던 점과 참여자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4주차(발표 주차) 참여 인원이 저조하였고, 프로그램 차수(4주)가 적어 참여자들과 강사들도 매우 아쉬웠다.

**꽃으로 하는 즉흥연주,
플라워잼
예술교육가 후기**

배애령

보라아트뮤직 대표

아이디어로 구상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장기간 동안 개발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변형되며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꽃과 음악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많은 부평주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참가를 희망했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가진 매력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꽃을 음표처럼 사용해서 연주한다는 추상적인 느낌을 통해 연구를 시작했으나, 꽃꽂이로 플라워잼 방식이 확정되면서 꽃꽂이의 균형을 위해 사용하는 화훼디자인의 요소와 음악의 구성요소간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를 도표화 할 수 있었습니다. <자각 어웨이크닝> 전체 3회의 프로그램을 모두 촘촘히 구성하기에는 6회차 연구로는 부족함이 있었고,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시범프로그램의 중심인 플라워잼에 가장 많은 연구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연구기회가 된다면 나머지 프로그램도 심화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composed of large, overlapping, curved shapes in two shades of green and white, creating a dynamic, organic pattern. A large, bold, black number '3' is positioned in the upper left quadrant, partially overlapping the green and white shapes.

3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활성화

01. 청소년문화예술교육

• 교육연극 : 슬기로운 학교생활

사업소개

<교육연극 : 슬기로운 학교생활>은 교사나 어른의 개입 없이 청소년이 주인이 되어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제시하며 갈등에 대한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참여형 연극이다. ‘연극 속 상황’이라는 안전한 장치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배우, 연출가, 작가가 되어 장면을 새롭게 구성하며 생각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을 배운다.

사업개요

<교육연극 : 슬기로운 학교생활>

2022.04. ~ 12.

예술교육가 교육연극연구소 프락시스
원성원, 김현정, 원주영, 육소영, 이다희, 이순원,
장남희, 명진희, 김보기, 김하림, 문현정, 안준기, 정지호

협력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내용 '교육연극'은 청소년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연극으로 걸으며 드러내기 어려운 갈등과 고민을 유쾌하고 안전한 '연극'으로 풀어보며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는 문화 예술교육이다.

운영대상

학교명	구분	일시	장소	참여인원
교사 워크숍	워크숍	04.27(금)	커뮤니티홀 호박	15명
부원여자중학교	워크숍	06.17(금)	교내	1학급 27명
	공연	06.29(수)	달누리극장	1학년 317명
상정중학교	워크숍	11.15(화)~15(수)	교내	5학급 109명
	공연	12.1(목)	달누리극장	3학년 109명
갈월초등학교	워크숍	06.13(월)~14(화)	교내	5학급 113명
	공연	06.30(목)	달누리극장	6학년 113명
대정초등학교	워크숍	06.16(목)~17(금)	교내	6학급 137명
	공연	07.1(금)	달누리극장	6학년 137명
금마초등학교	워크숍	11.2(수)	교내	3학급 47명
	공연	11.23(수)	달누리극장	6학년 47명

교육연극연구소 프락시스
〈교육연극 : 슬기로운 학교생활〉
교육커리큘럼



교육주제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변화

교육소개

구분	활동	활동내용
워크숍	놀이	머리와 몸을 깨우는 놀이로 자기소개를 하며 강사와 참여자 간 친밀감 형성하기
	상황극	상황극을 관람하고 청소년 고민 상담 전문가가 되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인공의 심리 유추해보기
	탐색	상황극 속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조별로 토론하기
공연	이미지 연극	이미지를 보고 인물, 사건, 배경을 유추하여 즉흥적인 대사로 장면 만들기
	관람	워크숍을 통해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짜여진 연극 <마스크 : 단절된 우리의 언어> 관람하기
	참여	연극 속 고조된 갈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극 속 인물이 되어 상황과 대사를 바꿔보며 문제를 해결해보기









시민문화예술교육 확대

01. 일상문화예술교육

• 뽀-클라쓰

사업소개 부평 사람 누구든지 쉽고 유쾌하게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뽀-클라쓰>.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문화예술교육의 접근 문턱을 낮추고자 전문 예술과 생활문화 또, 그 중간 어딘가쯤에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담았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도전해보지 않았던 문화예술을 4회차의 일반과정, 8~12회차의 심화과정 그리고 일일특강으로 경험하며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자 한다.

사업개요

일상 문화예술교육 <배-클라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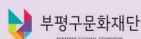
2022.05. ~ 11.

대상 성인 143명

참가비 일반과정 20,000원 / 심화과정 50,000원

일반 프로그램

과정	분야	교육명	내용	강사	강사	회차	장소
일반	생활 문화	가배플렉스	커피로스팅	강인규 이성근	04.20.~05.11. 매주(수) 19:30	4	부평생활문화센터 카페
일반	공예	한울한울	라탄공예	이소라	06.07.~06.30. 매주(목) 10:00	4	부평아트센터 커뮤니티홀호박
일반	문학	짧은소설	소설쓰기	이재은	07.07.~07.28. 매주(목) 19:30	4	부평아트센터 커뮤니티홀호박
일반	만화	오늘 뭐했니	웹툰	표지희	10.06.~10.27. 매주(목) 19:30	4	부평아트센터 커뮤니티홀호박
일반	공예	사각사각	목공예	남현우	11.06.~11.24.	4	부평아트센터



일상문화예술교육



비-클라쓰



가베틀렉스

5. 4 ~ 5. 25 매주(수) 19:30
커피로스팅 강인규, 이성근

한글한글

6. 9 ~ 6. 30 매주(목) 10:00
라탄공예 이소라

짧은 소설

7. 7 ~ 7. 28 매주(목) 19:30
문학 이재은

오늘 뭐했니?

10. 6 ~ 10. 27 매주(목) 19:00
웹툰 난희

사각사각

11. 3 ~ 11. 24 매주(목) 10:00
목공예 남머루

장 소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강168

대 상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성인 누구나

수강료 20,000원

신청 부평구문화재단 누리집

문의 032-500-2066



**여름 특강 및
심화 프로그램**

과정	분야	교육명	내용	강사	강사	회차	장소
여름 특강	공예	형형색색 빛의조각	유리공예	장예선	08.10.(수) 14:00	1	부평생활문화센터 커뮤니티홀호박
여름 특강	미술	실크팩토리	판화	박상아 이혜진	08.11.(목) 14:00	1	부평아트센터 커뮤니티홀호박
심화	미술	드로잉의 맛	펜드로잉	김효찬	03.31.~06.23. 매주(목) 19:30	11	부평아트센터 카페
심화	문학	나의 일상, 나의 이야기	에세이쓰기	최하나	09.21.~11.16. 매주(수) 19:00	8	부평아트센터 커뮤니티홀호박



드로잉의맛 영상 바로보기

가배플렉스 예술교육가 후기

강인규 · 이성근

예술강사

비가 내리던 마지막 수업, 수강생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블렌딩 원두로 커피를 내리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커피가 가진 힘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커피마저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커피를 더욱 더 깊고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이번에 진행한 ‘가배플렉스’ 수업이 그렇게나 빨리 마감된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번 교육의 목표는 ‘나만의 커피 만들기’였습니다. 나만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선 우선 내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사실 첫 수업에서 많은 분이 공통으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잘 몰라요...’ 하지만 수업을 거듭할수록 각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맛과 향을 알아가고, 그 취향을 직접 표현하고, 결국엔 그 커피를 직접 만들어냈죠. 우리는 커피를 잘 모른다는 말을 더는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더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이번에 진행한 교육에서도 우리가 목표한 바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커피 여정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처럼, 자신만의 커피를 찾아가는 여정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이 참석한 모든 분에게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기적소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부평구문화재단과 마지막 수업까지 반짝이는 눈으로 열정을 보여주신 모든 수강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울한울 예술교육가 후기

이소라 예술강사

라탄이라는 소재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이지만 우리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수업을 신청하신분들께 “라탄으로 만든 채반이나 바구니들 보신 적 있으시죠?” 라고 물으면 그때서야 “아하~ 본 것 같아요” 라는 반응들을 보이십니다.

라탄은 우리 생활 속에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지요. 이런 소품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본다는 것 그리고 만든 것을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경험은 상당히 즐거움을 주는 일이기도 하지요. 라탄으로 소품 만들기가 결코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손으로 만들다 보니 손에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피가 나는 일도 가끔 있지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걱정을 조금 했었답니다. 수강생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시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약간 했었지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기우였어요. 다들 너무나 집중하며 수업에 참여하시고 아픈 내색하지 않으시며 작품을 열심히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숙제를 내드려도 열심히 해 오시고 몇몇 분들은 집에서 영상을 보시고 다른 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보셨다는 말씀, 너무 뿌듯했답니다. 강사로서 욕심을 조금 부려 작품 만들기 힘드셨을텐데 다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너무 아쉽다며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수업이 끝나버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번이라는 시간이 짧기는 하죠.

하지만 이 수업을 시작으로 라탄에 관심이 생기셔서 혼자서도 다른 작품 만들 기초는 마련되었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작품에도 도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업은 저에게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짧은소설 예술교육가 후기

이재은

예술강사

아래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부평, 이야기, 글쓰기
호기심, 산책, 고양이
엔지니어, 70대, 키
선택, 자유, 고통
꿈, 맥주, 결혼
K장녀, 갱년기, 질문
MZ세대, ENFJ, 국어국문
그림, 읽기, 보기
생각, 겁, 덩치
길다, 늦다, 이루다
거북이, 청개구리, 모나리자

<빠-클라쓰:짧은소설 쓰기> 참여자들이 소개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3개'입니다. 단어만으로도 어떤 얼굴이나 성격, 색깔이 떠오르지 않나요? 마지막에 있는 '거북이, 개구리, 모나리자'는 누군가의 별명이에요. 행동이 느려서, 청개구리처럼 엉뚱해서, 아름다운 미소 때문에(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별명으로 하는 자기소개라니, 제법 근사하지 않나요? 어색함과 부끄러움, 다정함과 반가움으로 가득했던 그 날의 공기가 명지바람처럼 코끝을 맴도는 기분입니다.

2차시와 3차시에는 짧은소설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2차시에는 로드 던세이니의 「불행교환상점」을 읽었습니다. 불행을 교환할 수 있는 상점에 우연히 들어간 남자는 자신의 '벧멀미'를 타인에게 주고 '엘리베이터 공포증'을 받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무서우면 얼마나 무섭다고? 알잡아봤다가 큰코다치는 경험을 하죠. 남자는 자신의 오판을 후회하고 불행에는 경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가는 죽음을 사고자 했던 사내도 있었다고 말하면서 불행의 상대성에 대한 사유를 던집니다.





3차시에 읽은 작품은 에이비드 온손의 「이른 봄」이에요. 농한기의 한가한 어느 저녁, 부부가 술 마시면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농사가 잘됐는지 아니니 하는 말은 쏙 빼고 ‘네가 가라, 서커스단’, ‘네가 코끼리랑 공연하라구’ 어쩌고 하면서 울고 웃는데 그들을 따라 독자도 킁킁, 흐흐 즐기게 됩니다. 재치와 유머가 가득한 작품이에요.

마지막 4차시에는 우리가 쓴 짧은소설을 감상하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가장 흥미진진했던 시간이었죠! 「언제쯤이면?」, 「아재냥과 칸나비스」, 「사랑하니까 헤어진단 말」, 「오후의 고백」, 「삼킬 수 없는 말들」, 「엄마의 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등을 완성한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훌륭히 해냈고, 매우 멋지셨어요.

2022년 7월의 목요일 밤, 짧은소설과 함께 해준 참여자들과 매번 따뜻한 커피를 챙겨주신 부평구문화재단 이슬기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또 뵈 수 있기를 바라요. 계속 써요, 우리.



드로잉의 맛 예술교육가 후기

김효찬

그림 작가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여름 오후에 장대비가 내린다면 나는 문을 활짝 열어 빗소리를 듣고, 더불어 와인 한 잔에 기타를 치며 못하는 노래지만 몇 곡 정도 흥얼거릴 것입니다. 또, 가끔은 이런 상상도 합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 듣게 된 최신 댄스곡에 리듬을 타며 춤을 추게 되고, 어느새 주위엔 사람들이 모여 거리는 작은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기에 우리는 자신이 꿈꾸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동경하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도전해볼까도 생각하지만,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상했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과 돈과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 대단한 열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간과 돈과 체력은 백 팔 가지 일들로 항상 모자라고 우리의 열정은 고등학교 시절 동경하던 커트 코베인이나 프레디 머큐리 혹은 빈센트 반 고흐를 떠나보내며 차갑게 식었을 것입니다.

멋진 카페나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능숙하고도 무심히 그은 몇 개의 선만으로 그림이 되는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저는 동경의 대상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림이 업인 사람일 뿐입니다. 저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하고 싶은 것들을 ‘언젠가는’이라는 말과 함께 가슴에 품고 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저의 수업을 굳이 들으려 와주시고 또 종강까지 완주 하심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작품을 내시고 전시까지 마치신 수강생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포함합니다.

각자 동경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돈도 안되는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이유는 소통과 표현에 있습니다. 모든 예술의 이유는 근사하게 표현되는 이야기에 있고 우리는 그것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사람을 이야기하고 사람 사는 패턴을 소통하는 것이 예술이라면, 예술은 곧 인문학인 것입니다.





<드로잉의 맛> 수업으로 봄이 다 가도록 함께 그림을 그렸던 모든 선생님들은 부디 그림을 예쁘게 잘 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칙 따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근사하게 할 수 있는 인문학으로서의 예술을, 언어로서의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획과 운영을 해주신 부평구문화재단 그리고 이슬기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종강까지 같이 하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 표현합니다.



나의 일상, 나의 이야기 예술교육가 후기

최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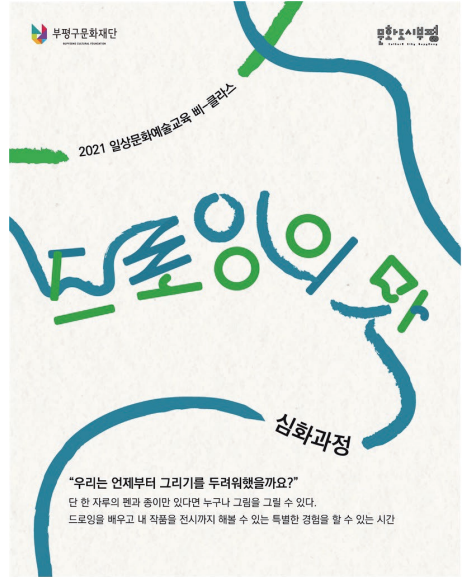
작가

저는 모두에게 적어도 한 권 정도의 이야기가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되지 않고 어른이 된 사람이 없듯 무수한 시간을 거쳐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에세이 수업을 할 때 더없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장에 들어서곤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서요.

이번 8주 강의에서는 글 한 편을 쓰는 게 아닌 책 한 권을 만들어 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밑 작업을 해야 했죠. 인생 속에 담긴 단편단편 이야기 중에 어떤 걸 골라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재밌을지를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8주 뒤 우리는 각자 인생 이야기를 엮어 만든 책 한 권을 품에 안고 만났습니다.

책 한 권을 썼다는 말에는 얼마나 무수히 많은 땀과 눈물이 담겨고 있는지를 알기에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수강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작은 바람이 하나 있다면 부디 이게 글쓰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길. 언젠간 글로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5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01.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사업소개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협의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역화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의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과 유관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 이에 발맞춰 부평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올해 문화예술교육 협의체는 작년에 사전모임단계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던 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도록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유관단체와 예술단체, 예술강사, 전문가로 구성하여 부평 지역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향후 협의체와 지역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업개요

1차 회의

주제 : 추진경과보고 및 2022년 예술교육팀 추진 세부 사업 현황소개,
문화예술교육 관련 부평구 내 각 기관별 이슈 공유 등

2차 회의

주제 : 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인천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방향성 논의 및 2023년도 사업 소개 등

3차 회의 (전문가 자문)

주제 :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방향 및 2023년도 사업관련 자문

운영기간 2022.06.~12.

운영대상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역예술인, 예술강사,
문화예술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사업담당 팀장 등

교육내용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가 모여 문화예술교육 관련 이슈,
정책 등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역 및
현장 기반 문화예술교육 분야 정책방향과 미래가치를
논의하며, 협력적, 참여적 네트워크를 구축



구성원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산학협력 교수	정승용	전문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장	최영화	전문가
청천2동 행정민원팀	주무관	교회숙	주민자치
부평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센터장	이영선	학교 밖 청소년
부평구청소년센터 꿈드림	팀장	이한슬	학교 밖 청소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부평구노인복지관 교육정책팀	팀장	전경은	노인
극단 상상이상	대표	오연주	영유아
지역예술가(미술)	-	동현경	지역예술가 및 예술강사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본부장	고동희	당연직
부평구문화재단 예술교육팀	팀장	우사라	간사



사랑방 문화예술교육

01. 공간특화 문화예술교육

-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
 - 몬스터 초등학교
 - 오감마을 차차차
- 팔로잉 말고 드로잉
 - 수상한 정글
- 슛확행Ⅱ : 나의 방

사업소개 부평문화사랑방의 공간특화 문화예술교육은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위치한 사랑방의 장소적 특징과 공간적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사업이다. 사랑방은 총 객석 126석의 블랙박스형 공연장과 다목적홀(로비)로 이루어져 있어 무대 중심의 예술교육부터 장르 간의 결합을 통한 융복합 예술교육에 이르기까지 공간 활용이 다양하다.

올해 사랑방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극, 미술, 생태예술, 융복합 등 총 6건의 공간특화 문화예술교육을 운영되었다. 공연 예술이 일어나는 사랑방의 공간적 특징을 활용해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무대 경험과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전하고자 했다. 사랑방은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예술공간으로 '친숙하지만 뻔하지 않은 문화예술교육'을 목표한다.

겨울방학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

2022 2.7-2.16

14:00-15:30
초등학교 예비2~3학년 15명

김은영, 이윤와
극연예술연구소 POISE

과평문화사랑방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문화도시부평
Culture City Bupyeong

사업개요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

2022.02.07.~02.16. 수 14:00~15:30 (총8회)

운영대상 초등학교 예비 2~3학년 (15명)

운영장소 비대면 줌(ZOOM)

참가비 100,000원

예술교육가 김은영, 이윤와, 공연 예술연구소 POISE

교육내용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은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연극 수업으로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표현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이다. 그림책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슈퍼거북」, 「슈퍼토끼」을 읽고 이야기 속 등장인물과 갈등 구조를 탐색하며 책 속 한 장면을 연극으로 표현한다.

운영과정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은 사랑방에서 매년 흥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신청 수요가 높은 겨울방학 기간에 맞춰 진행됐으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내용의 지루함을 줄이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3권의 그림책을 바탕으로 연극놀이를 진행하였고, 온라인 공유 메모장 ‘패드릿(Padlet)’을 이용해 집에서도 과제를 수행하고 연극놀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은 연극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몸으로 체험하고 인물, 공간, 사건을 탐구해보는 활동과 이야기 속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해보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우려와 달리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을 반기는 아이들도 있었고,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채팅, 글쓰기 등 컴퓨터 활용능력을 익힐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린이 연극놀이 교실 교육커리큘럼

교육주제	교육내용
몸열기 마음열기	연극 수업 소개 및 규칙 만들기 연극게임을 활용한 친밀감 형성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누구 똥이지?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이야기 만나기
등장인물 만나기	범인을 찾아라! 소리나는 말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연극으로 만나기
장면 발표하기	해설이 있는 마임 자신이 만든 소품으로 인물표현하기
슈퍼거북	슈퍼거북은 뭐지? <슈퍼거북> 이야기 만나기
주인공이 되어보아요	“내가 만약 슈퍼거북이라면?” 장면역할극 주인공의 심정을 이해하기, 주인공에게 말하고 싶어요.
슈퍼토끼	슈퍼토끼는 뭐지? <슈퍼토끼> 이야기 만나기
주인공이 되어보아요	“내가 만약 슈퍼토끼라면?” 장면역할극 주인공의 심정을 이해하기 주인공에게 말하고 싶어요.

100 인문학 · 예술 · 문화

편지를 써봐요

문장이 어색하게 써지고 글은 읽을 거라면 편지지에 담아주세요.

লেখক 14:21

마승환·푸른이에게

이러가 갑자기 왔어! 갑자기 작게
를 받았습니. 전지산씨에게도
있도록 하겠습니.

(마승환) 마지막 수업에 함께 놀아
관람할 정도로 나타내서 이해했어
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보기가
아이가 좋은 추억이 될것습니!

~ 다음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하길
원하습니~

লেখক 14:21

박성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작게
를 받았습니. 전지산씨에게도
있도록 하겠습니.

(박성우) 마지막 수업에 함께 놀아
관람할 정도로 나타내서 이해했어
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보기가
아이가 좋은 추억이 될것습니!

~ 다음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하길
원하습니~

লেখক 14:21

김선유·노들아와 재빨리에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작게
를 받았습니. 전지산씨에게도
있도록 하겠습니.

(김선유) 마지막 수업에 함께 놀아
관람할 정도로 나타내서 이해했어
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보기가
아이가 좋은 추억이 될것습니!

~ 다음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하길
원하습니~

লেখক 14:21

박세한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작게
를 받았습니. 전지산씨에게도
있도록 하겠습니.

(박세한) 마지막 수업에 함께 놀아
관람할 정도로 나타내서 이해했어
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보기가
아이가 좋은 추억이 될것습니!

~ 다음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하길
원하습니~

লেখক 14:21

이종욱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작게
를 받았습니. 전지산씨에게도
있도록 하겠습니.

(이종욱) 마지막 수업에 함께 놀아
관람할 정도로 나타내서 이해했어
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보기가
아이가 좋은 추억이 될것습니!

~ 다음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하길
원하습니~

লেখক 14:21

이종욱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작게
를 받았습니. 전지산씨에게도
있도록 하겠습니.

(이종욱) 마지막 수업에 함께 놀아
관람할 정도로 나타내서 이해했어
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보기가
아이가 좋은 추억이 될것습니!

~ 다음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하길
원하습니~

লেখক 14:21

이종욱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작게
를 받았습니. 전지산씨에게도
있도록 하겠습니.

(이종욱) 마지막 수업에 함께 놀아
관람할 정도로 나타내서 이해했어
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보기가
아이가 좋은 추억이 될것습니!

~ 다음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하길
원하습니~

লেখক 14:21

이종욱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작게
를 받았습니. 전지산씨에게도
있도록 하겠습니.

(이종욱) 마지막 수업에 함께 놀아
관람할 정도로 나타내서 이해했어
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보기가
아이가 좋은 추억이 될것습니!

~ 다음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하길
원하습니~

লেখক 14:21

이종욱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작게
를 받았습니. 전지산씨에게도
있도록 하겠습니.

(이종욱) 마지막 수업에 함께 놀아
관람할 정도로 나타내서 이해했어
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보기가
아이가 좋은 추억이 될것습니!

~ 다음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하길
원하습니~

লেখক 14:21

이종욱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작게
를 받았습니. 전지산씨에게도
있도록 하겠습니.

(이종욱) 마지막 수업에 함께 놀아
관람할 정도로 나타내서 이해했어
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보기가
아이가 좋은 추억이 될것습니!

~ 다음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하길
원하습니~

লেখক 14:21

이종욱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작게
를 받았습니. 전지산씨에게도
있도록 하겠습니.

(이종욱) 마지막 수업에 함께 놀아
관람할 정도로 나타내서 이해했어
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보기가
아이가 좋은 추억이 될것습니!

~ 다음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하길
원하습니~

লেখক 14:21

이종욱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작게
를 받았습니. 전지산씨에게도
있도록 하겠습니.

(이종욱) 마지막 수업에 함께 놀아
관람할 정도로 나타내서 이해했어
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보기가
아이가 좋은 추억이 될것습니!

~ 다음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하길
원하습니~

লেখক 14:21

이종욱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작게
를 받았습니. 전지산씨에게도
있도록 하겠습니.

(이종욱) 마지막 수업에 함께 놀아
관람할 정도로 나타내서 이해했어
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보기가
아이가 좋은 추억이 될것습니!

~ 다음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하길
원하습니~

লেখক 14:21

이종욱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작게
를 받았습니. 전지산씨에게도
있도록 하겠습니.

(이종욱) 마지막 수업에 함께 놀아
관람할 정도로 나타내서 이해했어
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보기가
아이가 좋은 추억이 될것습니!

~ 다음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하길
원하습니~

লেখক 14:21

이종욱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작게
를 받았습니. 전지산씨에게도
있도록 하겠습니.

(이종욱) 마지막 수업에 함께 놀아
관람할 정도로 나타내서 이해했어
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보기가
아이가 좋은 추억이 될것습니!

~ 다음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하길
원하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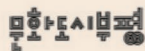
লেখক 14:21

이종욱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작게
를 받았습니. 전지산씨에게도
있도록 하겠습니.

(이종욱) 마지막 수업에 함께 놀아
관람할 정도로 나타내서 이해했어
요!!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보기가
아이가 좋은 추억이 될것습니!

~ 다음기회가 있다면 또 함께하길
원하습니~



2022 부평문화사랑방 문화예술교육

몬스터 초등학교



교육기간 : 2022년 7월 25일(월) ~ 7월 30일(토) 10:30~12:00 6회차

장 소 : 부평문화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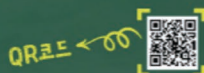
교육내용 : 애니메이션과 연극이 결합된 문화예술교육

교 육 비 : 75,000원

모집대상 : 초등학교 1~3학년 (15명 이하)

신청방법 : 부평문화재단 홈페이지 문화예술교육탭의 프로그램 신청란에서 접수

문 의 : 032-507-5996/032-500-2064



사업개요

<몬스터 초등학교>

2022.07.25.(월)~07.30.(토) 10:30~12:00 {총6회}

운영대상 초등학교 예비 1~3학년 (15명)

운영장소 부평문화사랑방

참가비 75,000원

예술교육가 김이환, 김승하

교육내용 <몬스터 초등학교>는 애니메이션 '몬스터 주식회사'를 바탕으로 기획된 연극놀이 프로그램이다. 내면의 모습을 인종, 나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몬스터로 표현하고 일상의 에피소드를 짧은 극으로 재구성하여 연극 무대를 완성한다.

운영과정 우리는 다양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다양성의 시작은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존엄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차이를 경험하고,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기에 다양성 존중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애니메이션 '몬스터 주식회사'에서 서로 다른 생김새와 특징을 가진 몬스터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듯, 우리 삶에서도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인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다.

<몬스터 초등학교>는 연극놀이에 다양성 존중 교육을 도입한 문화예술교육이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과 연극놀이의 결합하여 수업의 흥미를 유발하고, 연극에 대한 몰입을 높일 수 있었다. 아이들은 몬스터 초등학교 신입생이 되어 자기 내면을 도형과 색깔로 형상화하고, 자신의 성격과 특징을 몬스터에 투영하며 자신과 타인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연극의 한 장면으로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고, 타인과 호흡을 맞춰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었다.

몬스터 초등학교 교육커리큘럼

교육주제	교육내용
몬스터 캐릭터 디자인	수업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애니메이션 클립 감상 및 몬스터 특징 분석하기 나를 관찰하고 몬스터 조형물 만들기
몬스터 가면 및 의상 제작	몬스터 가면 및 의상 만들기 내가 만든 의상과 몬스터에 대해 소개하기
반가워, 나는 몬스터야	나를 몬스터로 인식하기 움직임과 대사를 통해 몬스터 표현하기 다른 몬스터와 유대감 형성하기
몬스터 초등학교 스토리텔링	나의 이야기로 스토리텔링하기 나의 이야기를 대사로 말하기 공연을 위한 장면 만들기
몬스터 초등학교 연극 준비	공통의 에피소드를 선택한 팀별 장면 만들기 대본과 동선 만들기 연습한 장면에 기술적 요소 결합하기
작은공연	리허설 및 연극 무대 점검하기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공연 소감 공유하기





2022 부평문화사랑방 공간특화 문화예술교육

오감마음

차차차

교육기간

2022년 8월 3일 ~ 9월 7일(매주 수)
15:00~16:30 6회차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교육내용

오감놀이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문화예술교육

모집대상

초등학생 1~2학년 (15명 이하)

교육비

교육비 75,000원

신청방법 및 문의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문화예술교육탭 > 프로그램 신청란
문의: 032-507-5996



사업개요

<오감마을 차차차>

2022.08.03.~09.07. 수 15:00~16:30 {총6회}

운영장소	부평문화 사랑방, 굴포천 일대
운영대상	초등1~2학년 15명
참가비	75,000원
예술교육가	박태민, 채시라, 정윤진
교육내용	<오감마을 차차차>는 부평의 생태 하천인 굴포천을 중심으로 자연을 탐구하고, 오감을 탐색해보는 문화예술 교육이다. 시각, 청각, 촉각 등 신체감각에 집중하는 오감놀이를 통해 일상 속의 자연을 재발견한다.

운영과정 유네스코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 1만 5천 명이 2030년까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기후 변화’를 꼽았다고 한다. 환경문제와 이에 따른 이상기후로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에 문화예술현장에서도 미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

<오감마을 차차차>는 이런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생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자연과 예술놀이의 결합을 통해 일상에서 쉽게 지나쳐버리는 풍경을 재발견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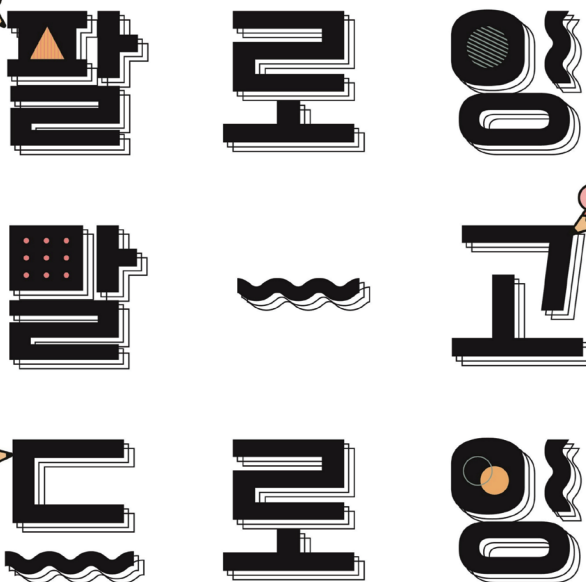
참여 아이들은 굴포천을 산책하며 동식물이 이루는 자연 생태계를 관찰하고, 신체 감각과 연결된 예술활동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오감마을 차차차 교육커리큘럼

교육주제	교육내용
굴포천 차차차	시각, 청각, 촉각을 중심으로 굴포천 탐구하기 자연물 관찰하기
찌르르르, 동굴에서 소리가 나	굴포천에서 녹음한 소리를 듣고, 나만의 소리로 표현하기 소리동굴(낙하산)에서 자연소리 표현하기 소리를 듣고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손으로 보는 굴포천	미스터리 상자에 든 자연물 맞추기 손으로 느낀 촉감을 키워드로 표현하고, 키워드와 관련된 그림 그리기
상상날개 펼치기	감각카드를 조합해 한줄 이야기 만들기 이야기 속 인물(사물)이 되어 발표하기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동작을 따라하는 거울놀이 진행
찰칵, 걸어서 그림 속으로	배경과 제시되는 장소와 어울리기 동작을 취해 한 폭의 그림 완성하기 그림자 인형극 만들기
오감마을 그림자 연극	시각, 청각, 촉각과 관련된 단어카드를 뽑고 오감마을 이야기 만들기 그림자 연극으로 이야기 표현하기 참여 소감 공유하기



2022 부평문화사랑방 문화예술교육



교육기간 : 2022년 8월 9일 ~ 9월 27일(매주 화) 17:00~18:30 8회차

장 소 : 부평문화사랑방

교육내용 : 책과 연계된 드로잉 작업을 완성해나가는 문화예술교육

교육비 : 100,000원

모집대상 : 초등학교 3~4학년 (15명 이하)

신청방법 :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문화예술교육탭의 프로그램 신청란에서 접수

문의 : 032-507-5996/032-500-2064

사업개요

<팔로잉 말고 드로잉>

2022.08.09.~10.05. 화 17:00~18:30 {총8회}

운영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밀알도서관 백일홍실
운영대상	초등3~4학년 15명
참가비	100,000원
예술교육가	김수민, 김수기
교육내용	<팔로잉 말고 드로잉>은 2022년 책 읽는 부평 선정도서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를 바탕으로 기획된 드로잉 수업이다. 내 마음과 일상을 가꾸는 '셀프가드닝'을 주제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운영과정 <팔로잉 말고 드로잉>은 작품의 완성보다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과정 중심 드로잉수업이다. 책의 키워드와 관련된 예술가들의 작품과 삶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보고, 한 폭의 그림에 담아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 아이들은 매 수업마다 새로운 예술가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미술 재료를 활용해 드로잉 작업을 이어갔다.

본 프로그램은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 모두가 수업에 진지하게 임했다. 수업 초반에는 그림을 완성하지 못해 초조해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온전히 몰입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의 고민과 속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위로받고 치유되길 기대한다.

팔로잉 말고 드로잉 교육커리큘럼

회차	키워드	관련 작가	내용
1	잇을 수 있는 시간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소품이나 물건을 화폭에 담고 관련된 추억을 나눈다.
2		피카소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피카소의 '면 분할' 기법으로 완성한다.
3	스페인 계단 위	마티스	자신을 표현하는 색과 좋아하는 움직임을 마티스의 '컷아웃'기법으로 표현한다.
4	꽃의 말을 듣는 하루	고흐	고흐의 대표작인 <해바라기 열다섯 송이>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고, 직접 채집한 식물을 그림으로 완성한다.
5			
6	우울한 날 우리는 예술가가 된다	키스해링	키스해링의 낙서처럼 연습장 한켠에 그려둔 낙서를 찾아와 의미를 나누고, 낙서를 밑그림 삼아 채색 한다.
7		몽크	몽크의 <절규>를 감상하며 그날의 감정을 이야기 하고, 감정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주변 환경과 자신 의 모습을 그려본다.
8	가장 빛나는 길잡이 별	고흐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감상하고 아크릴 물감의 질감과 색의 변화를 살펴본다.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문화도시부평
Culture City Bupyeong

2022 부평문화사랑방 문화예술교육

수상한 정글

VR 페인팅 도구를 이용해 상상 속 정글을 만들고
탐험할 모험가를 모집합니다

신청일시	9/7(수)~9/30(금)
참여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모집대상	초등학생 3~6학년
신청방법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
교육비	70,000원
교육기간	10/1(토)~11/12(토)
문의	032-507-5996

사업개요

<수상한 정글>

2022.10.01.~11.12. 토 10:00~12:00 {총7회}

운영장소 부평문화사랑방

운영대상 초등3~6학년 15명

참가비 70,000원

예술교육가 조신희, 배정은

교육내용 상상 속의 정글이 눈앞에 펼쳐진다!

<수상한 정글>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이다. VR페인팅 도구를 이용해 상상 속의 세계를 만들어보며 예술창작과 문화 기술을 동시에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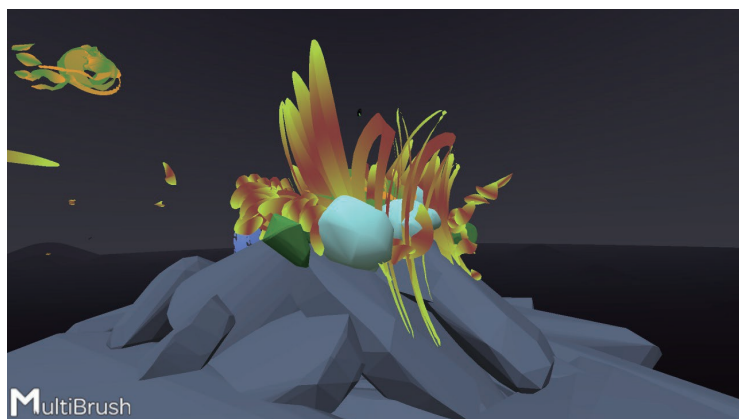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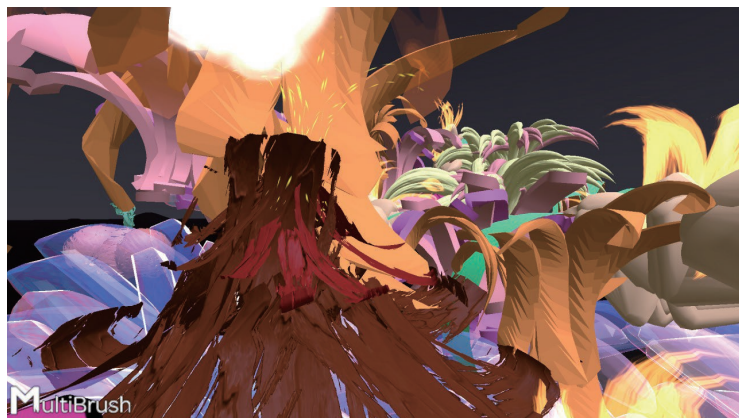
운영과정 <수상한 정글>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문화 예술교육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가 고민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술'과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고집어낼 수 있었다. 실로 우리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기술은 분야 간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미디어아트와 융복합예술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수상한 정글>은 VR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으로, 가상공간에서 예술창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VR창작도구 '틸트 브러시'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조형물을 만들고 가상세계를 구축하며 회화, 조각, 건축으로 이어지는 창작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VR 예술의 가장 큰 매력은 시공간의 제약의 받지 않고 머릿속 상상을 무한히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상한 정글 교육커리큘럼

회차	키워드	내용
1	이것도예술이야?	미디어 아트와 가상현실(VR)에 대한 이해
2	2D를 넘어, 3D 드로잉!	VR페인팅 도구 틸트 브러시 소개
3	신비한 동물사전	초현실주의 그림 그리기
4	그림에서 소리가 들려	그림으로 이야기 완성하기
5	수상한 정글 만들기 1	VR공간 기획하기
6	수상한 정글 만들기 2	협업 드로잉
7	수상한 정글 탐험하기	가상현실(VR)체험 및 활동 소감 나누기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부평

2022 부평문화사랑방 문화예술교육

나의 방

내 감정은 어떤 형태일까?

<속삭행: II나의 방>은 나의 속마음을 들여다 보고
다양한 모양과 멜로디로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1기 2022. 11. 02.(수) ~ 10.(목)
16:00~17:30(4회차)

2기 2022. 11. 16.(수) ~ 24.(목)
16:00~17:30(4회차)

장 소

부평문화사랑방

모집대상

1기 초등학교 1~3학년(15명 이내)

2기 초등학교 4~6학년(15명 이내)

신청방법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

문의

032-507-5996

사업개요

<숫확행Ⅱ : 나의 방>

1기 2022.11.02.~11.10. 수,목 16:00~17:30 {총4회}

2기 2022.11.16.~11.24. 수,목 16:00~17:30 {총4회}

운영장소 부평문화사랑방

운영대상 초등3~4학년 15명

참가비 50,000원

예술교육가 강현구, 한채아

교육내용 모든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는 감정의 방, 내 방은 어떤 모습일까? <숫확행Ⅱ : 나의 방>은 아동기에 발달해야 할 '자기인식'과 '자기표현'을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미술, 음악, 연극이 어우러진 예술활동을 통해 나의 감정을 탐구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스스로를 객관화 해본다.

운영과정 눈에 보이지 않아 인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매일 거울에 비친 모습을 확인친하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을까?

<숫확행Ⅱ : 나의 방>은 아이들에게 내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 아이들은 2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미술, 음악, 연극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예술 활동을 통해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상 속에서 자주 느끼는 감정과 그 감정이 느껴질 때 경험하는 몸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고,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에 색과 형태를 입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숫화행II : 나의 방 교육커리큘럼

회차	키워드	내용
1	비밀의 방 열기	· 수업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 명상 놀이를 통해 감정의 방 들여다보기 · 감정 마인드맵 · 활동 소감 나누기
2	나의 방 여행하기	· 음악에 따라서 변화하는 감정 관찰하기 · 나의 감정을 담은 멜로디 만들기 · 멜로디 녹음 · 나만의 노래 발표하기
3	나의 방 표현하기	· 팀 활동 준비, 감정카드 뽑기 · 카드에 적힌 감정을 주제로 대사와 장면 만들어보기 · 연극 소품 및 의상 준비하기 · 리허설 발표
4	놀러오세요 비밀의 방으로	· 무대 준비 및 장면 연습 · 초대관객 입장 · 관객이 배우와 함께 연기하는 참여형 연극 · 마무리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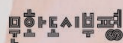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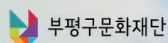




02.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 VR예술과 만나다 : 나만의 가상 정원 만들기

사업소개 부평문화사랑방의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기관, 전문 문화예술단체 등과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의 키워드는 ‘메타버스(Metaverse)’로 지역 내 전문교육시설과 예술 단체와의 회의를 거쳐 기획 단계를 밟았다.



2022 부평문화사랑방
문화예술교육

VR예술과 만나다 나만의 가상 정원 만들기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기간

2022. 10. 31.(월)~
2022. 12. 05.(월)

모집대상

성인 10여 명

교육비

75,000원

문의

032-507-5996

참여작가

김진규 전희경 김영현

프로그램 소개

김진규 작가의 워크숍을 통해,
가상현실(VR) 기기로 자신의 이야기와
감성이 담긴 가상 정원을 만든다.

사업개요

운영기간 2022.10.31.~12.05. 월 19:00~21:00 {총6회}

운영대상 성인

운영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참가비 75,000원

예술교육가 김진규, 전희경, 김영현

교육내용 <VR예술과 만나다>는 동시대 예술가와의 만남을 통해 예술작품이 구현되는 과정을 배우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문화예술교육이다.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3명의 예술가의 작품을 통해 예술에 기술이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나만의 감성과 이야기가 담긴 VR 정원을 만들어본다.

운영과정 <VR예술과 만나다>는 올해 사랑방에서 운영된 사업 중 유일하게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직접 창작하고 예술가와 소통하는 능동적인 예술체험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문화 예술교육이 필요했다. 이에 지역 예술가가 강사가 되어 구민을 대상으로 동시대 예술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예술 창작과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가상현실을 쉽고 재밌게 접근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고민하면서 카드보드 VR키트를 만들고, 3차원 가상공간에서 평면 그림과 입체 그림을 그려보는 등 점층적으로 내용의 깊이를 더하였다. 또한 예술가의 VR작품을 통해 창작의 아이디어가 기술과 융합돼 예술작품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알아가며 기술사회 시대에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VR예술과 만나다 : 나만의 가상 정원 만들기〉 교육커리큘럼

교육내용

창작 도구로서의 가상현실(VR)

-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현실(VR)이란?
- 카드보드 VR 키트 만들기
- VR 기기 오쿨러스 퀘스트2 소개
- VR 콘텐츠 체험

VR 드로잉, 선에서 조각으로

- VR 드로잉 설명
- 가상현실에서 2D 그림 그리기
- 가상현실에서 3D 조각하기
- 결과물 공유

예술 영역의 확장

- 언리얼 엔진 프로그램 소개
- 언리얼 엔진 VR 콘텐츠 체험

예술가의 만남

- 작가 및 작품 소개
- VR 작품 감상
- 작가와의 대화
- 작품 관련 VR 콘텐츠 체험

나만의 가상 정원 만들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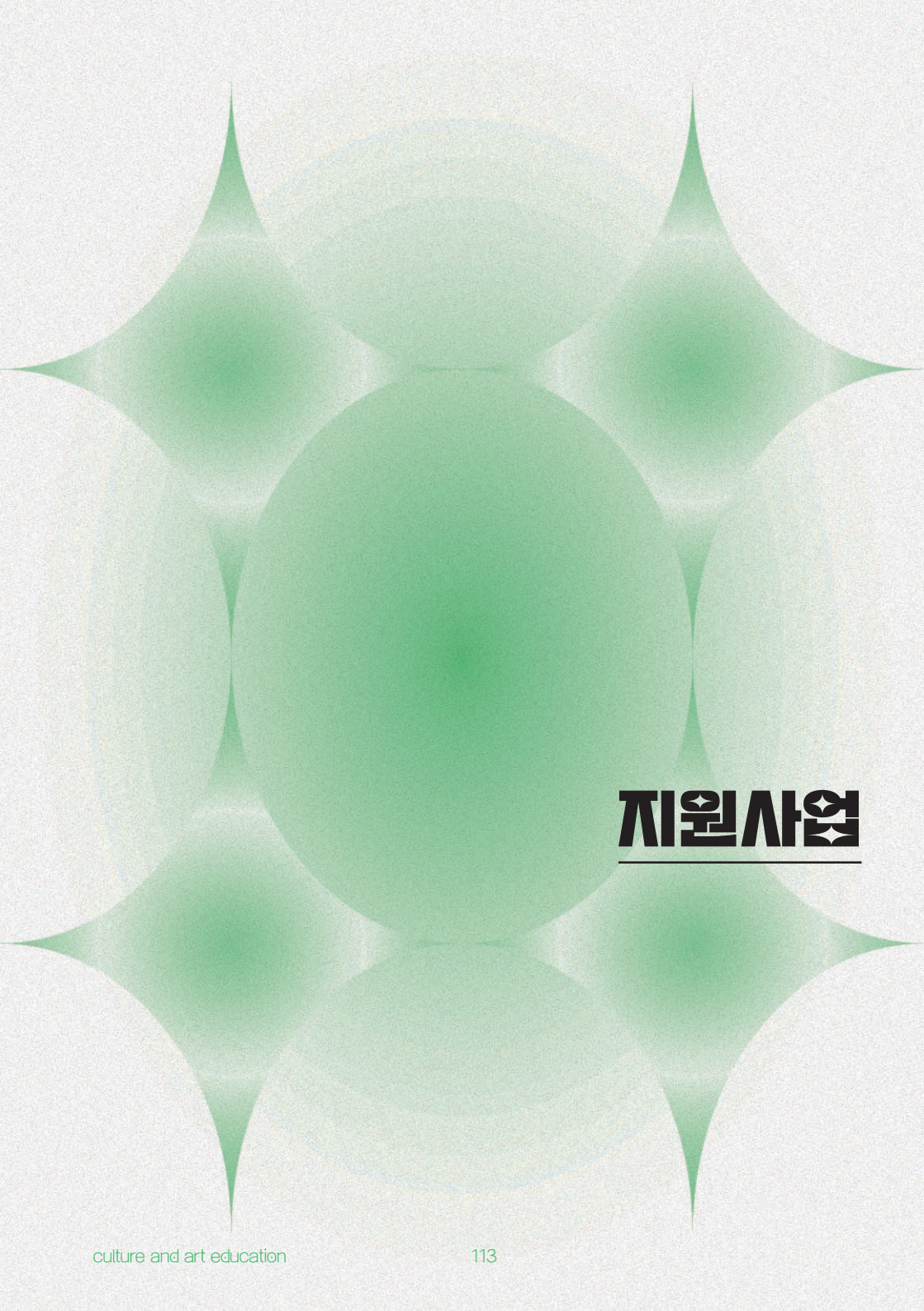
- 트윈모션 프로그램 소개
- 트윈모션을 이용한 가상 정원 만들기 실습

나만의 가상 정원 만들기 2

- 트윈모션을 이용한 가상 정원 만들기 실습
- 가상 정원 공간 체험
- 참여 소감 공유



7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light green color with a complex, symmetrical geometric pattern. The pattern consists of overlapping circles and pointed shapes, creating a star-like or floral effect. The colors are various shades of green, from light to dark, with some areas appearing more saturated than others. The overall effect is a textured, organic feel.

지원사업

0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계절의 숲으로 간 음악탐사대>

사업소개 꿈다락토요문화학교는 주5일 시행된 2012년부터 시작된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올 해 부평구문화재단은 사계절의 주제에 맞춰 음악을 감상해보고 음악의 3요소(리듬, 선율, 화성)를 다양한 활동으로 이해하고, 조별로 직접 작곡을 하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 함양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음악과 관련된 감상교육을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서 아이들과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사업개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계절의 숲으로 간 음악탐사대>

2022.06.11.~10.01. 매주 토요일 10:00~12:00

운영장소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운영대상 초등1~2학년 15명

참가비 무료

예술교육가 송민경, 허인애, 함푸른

교육내용 <계절의 숲으로 간 음악탐사대>는 사계절을 주제로 한 감상교육을 통해 심미적 감수성과 감상능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 음악의 3요소를 탐구함으로써 음악의 본질적 특성을 통찰하고, 음악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자기표현 능력도 발휘 할 수 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계절의 숲으로 간 음악탐사대> 교육커리큘럼

회차 교육내용

- 1 **사계를 통해 만나는 봄의 리듬**
 - 리듬에 초점을 둔 음악 감상
 - 다양한 리듬 패턴 탐구 및 간단한 리듬 창작
 - 1) 사계절 중 봄과 관련된 음악을 감상하며 다양한 리듬 패턴 탐구하기
(예 : 봄의 왈츠, 봄노래, 벚꽃엔딩 등)
 - 2) 리듬게임으로 리듬감각 깨우기: 리듬모방게임, 즉흥 리듬연주, 리듬전달게임 등
 - 3) 리듬 창작하기: 봄에 어울리는 리듬 만들기(조별 활동)

- 2 **사계를 통해 만나는 여름의 선율**
 - 선율에 초점을 둔 음악 감상
 - 선율의 움직임 탐구 및 간단한 선율 창작
 - 1) 사계절 중 여름과 관련된 음악을 감상하며 선율의 다양한 움직임 탐구하기
(빗방울 전주곡, 여름안에서, Summer 등)
 - 2) 바디멜로디로 게이름 익히기
 - 3) 선율 창작하기: 여름의 느낌을 선율로 표현하기

- 3 **사계를 통해 만나는 가을의 화성**
 - 화성진행에 초점을 둔 음악 감상
 - 화성의 다양한 느낌 탐구 및 간단한 코드진행 만들기
 - 1) 사계절 중 가을과 관련된 음악을 감상하며 화성진행이 주는 다양한 느낌 탐구하기
(비발디 '사계' 중 가을, 시간과 낙엽, 가을바람 등)
 - 2) 이어판타지 활동: 네 종류의 화음을 듣고 4컷만화 그리기
 - 3) 조별 작곡 워킹업: 각 계절을 주제로 코드진행 만들기

회차	교육내용
4	사계를 보내며: 겨울에 어울리는 노래 - 음악의 3요소를 이해하며 음악 감상 - 리듬, 선율, 화성의 조화를 생각하며 노래 만들기 1) 계절 중 겨울과 관련된 음악을 감상하며 음악의 3요소 확인하기 (겨울바람, Jingle Bell Rock 등) 2) 조별 작곡 이어가기: 1,2차시에 만들었던 리듬과 선율을 활용하여 계절과 관련된 조별 노래 완성하기
5	우리들의 사계절 노래 - 조별노래 감상 후 감상평 공유하기 1) 조별 노래 완성본을 순서대로 들으며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려 앨범자켓 만들기 2) 리듬, 선율, 화성에 초점을 둔 감상평 발표
6	공연 관람 - 리듬, 선율, 화성을 즐기며 음악 감상하기 1) 공연 관람 예절 사전교육 2) 공연 관람 후 느낀 점 공유하기



계절의 숲으로 간 음악 탐사대 참여자 모집안내

1기 6월 11일 ~ 7월 16일

2기 8월 20일 ~ 10월 1일
매주 토요일(기수별 6회차)

01

사계절을 주제로 한 감상교육을 통해
심미적 감수성과 감상능력 기르기

02

음악의 3요소(리듬, 선율, 화성)를
탐구하여 친구들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노래 만들어보기

03

음악관련 공연을 관람을 통해
스스로 다양한 음악을 선택하여
감상하기

교육신청
www.bpcf.or.kr

문의
032.500.2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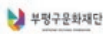
참가비
무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orea Culture and Arts Commission



부평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예술교육가 후기

송민경

예술강사

‘계절의 숲으로 간 음악탐사대’는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수업이 불가능했던 시기를 지나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학습자들을 만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뜻깊은 프로그램이었다. 여전히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고 있었기에 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학습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강사진이 수일동안 머리를 맞대고 커리큘럼을 정돈한 결과, 사계절을 키워드로 한 ‘계절의 숲으로 간 음악탐사대’ 교육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되었다.

음악의 3요소인 리듬, 선율, 화성을 탐구함으로써 아이들이 음악의 본질적 특성을 통찰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으며, 특별히 감상과 함께 창작활동을 연계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음악의 구성요소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감상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감상을 할 때는 어느 한 가지 장르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클래식, 대중음악,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스스로 음악을 폭넓게 선택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유도한 측면도 있다. 교육기간 중 공연장에 가서 연주회를 관람하는 차사가 포함되었다는 것 또한 매우 의미가 있는데, 아이들이 실제적인 문화생활을 통해 예술을 일상에서 손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예술교육가 후기

허인애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수년간 진행해온 강사로서 매번 참여자들이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과 감동을 느끼곤 한다. 이번에도 6차시씩 두 기수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음악을 그 자체로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이 이러한 예술적 체험을 통해 일상 속에서 예술을 누릴 줄 아는 태도를 갖추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의 아동들과의 만남은 늘 설렘으로 가득하다. ‘이번에는 또 어떤 통통 튀는 생각들이 나올까?’라는 기대를 하게 만든다. 특히 이번 ‘계절의 숲으로 간 음악탐사대’는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 그런지 더욱더 빨리 현장에서 아동들을 만나보고 싶게 하였다.

한 기수 마다 6차시의 프로그램이라 다소 짧게 느껴지는 수업이었지만 그만큼 각 차시의 수업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다. 각 차시마다 어떤 교육내용을 넣어야 좀 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지 사전회의에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다. 수업내용에서 감상 곡을 선별할 때에도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고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해보며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첫 수업 시간에 몸짓으로 자기소개를 했을 때 대부분의 아동들이 어색해 하고 쑥스러워하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차츰차츰 강사진들이 추구 하는 아동들의 원활한 소통과 자유로운 표현 방식에 아동들도 점차 적응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작곡활동에서는 아동들의 재치 있고 자유로운 생각들로 흥미로운 창작곡을 만들기도 하였다. 틀에 박힌 전형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아동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계절의 숲으로 간 음악탐사대’는 아동과 강사진 모두에게 즐거운 소통창구였다. 음악이라는 문화예술로 아동들과 소통하며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 매 수업을 마칠 때마다 ‘우리는 음악 탐사대!’ 라고 외치며 수업을 마치고 했는데 수업은 종료되었지만 아동들이 일상 속에서도 멋진 음악 탐사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





예술교육가 후기

함푸른

예술강사

아이들을 만나러가는 매주 토요일이 너무나 설렜다. 낯선 환경에 놓인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긴 어려웠지만 초반과 다르게 아이들이 서서히 마음을 여는 것을 보았다. 사실 수업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음악을 감상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내려놓아도 되는 걱정이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예술로서 풀어내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견했고 조금이나마 아이들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었기에 이번 꿈다락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강사로서 부평에서 만난 아이들은 나에게 예술적 영감과 교육가로서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사계절을 마주한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많은 음악가가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 아닐까? 아이들이 바라보는 사계절은 딱 그 나이 때에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자 행복이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며 과거에 내가 품었던 꿈을 떠올릴 수 있었다. 삶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꿈과 동심은 어느새 잊혀진다. 하지만 꿈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 수 있는 동력이다. 꿈다락에서 만난 모든 아이들이 일상의 행복과 예술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잊지 않고 평생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란다.



02.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 어른들의 예술감상 놀이터 - <사진 속으로>

사업소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지원으로 운영된 <사진속으로>는 예술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감상의 폭을 넓히는 '예술감상형' 문화예술교육이다. 50세 이상 성인 48명과 함께 다채로운 사진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촬영하며 사진을 표현의 수단이자 언어로 인지해 사진 속에 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개요

어른들의 예술감상 놀이터 <사진 속으로>

기초과정 2022.7.6.~8.10. 매주(수) 10:00 (총 6회)

심화과정 2022.8.24.~9.28. 매수(수) 15:00 (총 6회)

운영장소 부평아트센터 커뮤니티홀호박

운영대상 사진에 관심있는 50세 이상 성인

참가비 무료

예술교육가 이승주, 신수빈, 심성연

교육내용 사진을 잘 찍는 기술 습득 수업에서 벗어나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사진을 겉에서부터 내면까지 읽을 수 있도록 감상 기능을 향상하는 문화예술교육이다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2022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어른들의 예술감상 놀이터



사진속으로

〈사진속으로〉는

다양한 시각으로 사진을 '읽을 수 있도록'
시각예술의 기초 지식을 익히며
사진을 표현의 수단이자 언어로 인지하여
나만의 시각으로 사진을 감상하고
표현하는 감상형 프로그램입니다.

일 정 기초과정 2022.07.06~08.10 매주 (수) 10:00

심화과정 2022.08.24~09.28 매주 (수) 10:00

장 소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대 상 사진에 관심 있는 50세 이상 성인

수강료 무료

신청 부평구문화재단 누리집 선착순 접수

기초과정 2022.06.14(화) 10:00 부터

심화과정 2022.07.26(화) 10:00 부터

문의 032-500-2066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부평구문화재단

사진 속으로 교육커리큘럼

교육목표

기초과정

- 다양한 사진 작품을 감상하며 사진을 ‘읽는’ 방법을 체화한다.
- 사진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품을 감상하며 나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표현해본다.

회차	주제	내용
1	표면으로 다가가기	· 사진의 의미와 탄생 · 나의 사진에 의미부여하기
2	빛으로 보는 사진	· 물리적인 빛 그리고 의미로의 빛 · 빛으로 그리는 그림 사진 · 사진 그리고 프레임, 빼내기의 예술사진
3	사진 속 시간과 공간	· 시간을 공간에 새기는 방법 · 1분 사진
4	전시 감상	· <안드레아스 거스키전> 감상 @아모레퍼시픽미술관
5	지금 그리고 여기	· 사진 그리고 시간의 축적 · 사진이 다루는 시간 이야기
6	채집하기	· 내 주변 바라보기, 채집하기, 정리하기 · 나의 시선 그리고 기록

사진 속으로 교육커리큘럼

교육목표 심화과정

- 사진을 표면에서부터 안쪽까지 들여다보는 경험을 통해 나만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시각을 갖는다.
- 나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정리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경험을 한다.

회차	주제	내용
1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 다큐멘터리 사진과 사적인 다큐멘터리 사진 · 나의 주변 관찰하기
2	사진과의 거리	· 친근하게 다가가기, 낯설게 바라보기 · 도시의 풍경 관찰하기
3	전시 감상	·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사진전 : 결정적 순간> 감상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4	찍고 만들고 빼고 더하고	· 찍는 사진과 만드는 사진 · 빼내는 사진과 더하는 사진
5	쌓아올리기	· 깊숙하게 들어가서 쌓아올리기 · 연관 없는 것들을 연결하여 연관짓기
6	나의 언어, 사진	· 사진으로 나의 이야기 발표하기 · 나의 언어로서의 사





예술교육가 후기

이승주

성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이 되었던 부평구문화재단의 프로그램 '사진속으로'는 참여자들 적극적인 참여와 부평구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진행했던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첫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던 청소년과는 다른 참여자가 성인으로 구성된 수업이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들이 대상인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전의 다른 수업과는 다른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사진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닌 감상을 통해 사진을 '읽어' 보고 '활용' 하는 수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걱정은 기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참여자분들께 걱정했던 부분은 '보는' 사진을 '읽어' 본다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는 지점이었지만,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집중하면서 물들어가듯이 빠져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참여자분들 대부분은 사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매체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표면으로부터 심층으로' 들어가는 사진의 여행을 함께 진행하면서 저 또한 많은 가능성을 엿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다양한 사진을 감상하고 해석하고, 재현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 또한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했던 여러 활동 중 특히 인상 깊었던 활동은 ‘과거의 자신에게 편지 쓰기’였습니다.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성인들이 과연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자신의 사진들에 대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현재의 자신의 시점에서 과거의 사실을 떠올리며 활동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 사진을 자신의 시각으로 ‘읽고’, ‘표현’하는 수업의 취지가 잘 전달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수업은 저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경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부평구문화재단에 감사드리며 함께 수고했던 신수빈, 심성연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예술교육가 후기

심성연

50세 이상의 성인과 사진 읽기 수업을 하는 일은 결코 녹록하지도 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에 관한 인상과 자신 나름의 철학 안에 갇히지 않으며 깊이와 넓이를 적극 확장 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진속으로>는 참여자의 주관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배움을 통해 사진 내면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돕는데 탁월한 교육입니다. 사진의 표면에서 내면까지 시야를 확장시키고 다양한 시각에서 사진을 읽어내는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속으로>에 강사로 참여하며 이 교육이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참여자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사진의 의미를 고민하게 하고 그 이후에 사진을 찍고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면서 진취적인 수행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하게 와 닿았던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 일’을 쉽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 기기를 이용해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에 능동성과 적극성을 부여하는 순기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모두 한 번씩은 사진을 찍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 촬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 참여자가 가진 기기를 이용해 적극적이고 간편하게 사진을 찍음으로써 사진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또한,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신 부평구문화재단에 감사드립니다.



03.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

• <꿈꾸는 숲>

사업소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3년 미만인 39세 미만 청년 문화예술교육사에게 예술현장의 실무를 경험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부평아트센터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유아 대상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사업개요

<꿈꾸는 숲>

2022.09.17.~10.22. 매주(토) 10:00 {총6회}

운영장소 부평아트센터 커뮤니티홀호박

운영대상 6~7세 유아 16명

참가비 무료

예술교육가 이주은, 김선율, 강민정, 김솔이

교육내용 예술 활동 재료를 자연 속에서 직접 채집하고 관찰하는 감각 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생태 감수성과 창의력을 향상하고 보고 느낀 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미술 활동이다.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문화도시부평
 CULTURE CITY BUPYEONG

2022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어린이 생태체험 예술프로그램

꿈꾸는 숲

예술과 함께 숲으로 가요!

숲속에는 누가 살고있을까? 숲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태계를 만나고
어린이 예술가가 되어 나만의 숲을 만들어보자!

일 정 2022. 9. 17 ~ 10. 22 매주(토) 10:00 (총 6회)

장 소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대 상 6 ~ 7세 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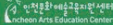
수 감 료 무료

강 사 이주은 · 김산울 · 강민정 · 김솔이

신청기간 2022. 8. 18.(목) 10:00 부터
부평구문화재단 누리집 선착순 접수

문 의 032-500-2067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문화재단 IFAC
  부평아트교육지원센터
 협력  전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후원  부평구문화재단

꿈꾸는 숲 교육커리큘럼

회차	주제	내용
1	숲 탐험 원정대 - 출발!	예술 숲 체험을 위한 준비 #탐험 #공간과 친해지기 #친구들과 친해지기
2	힘을 모아 숲을 찾아요	다양한 식물의 특징을 발견하고 함께하는 숲 만들기 #오감체험 #식물의 모양 #오만가지 흙
3	숲 친구 집으로 놀러가요	식물의 다양한 형태와 색 발견하기 #오감체험 #자연의 색 #내가 좋아하는것
4	꿈을 먹고 자라는 나무를 만나요	것자연물을 이용하여 개성있는 조형물로 구성하기 #꿈나무 #식물이 자라는 환경 #나의 소원
5	나의 리틀 포레스트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고 함께 성장하기 #식물심기 #반려식물 #식물의 성장
6	예술과 함께하는 숲으로 초대합니다	예술 숲 탐험 소개하고 소감 나누기 #전시회 #탐험대 해단식











2022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결과자료집

발 행 인 이찬영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처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pcf.or.kr
문 의 032-500-2000

총 괄 고동희
기획총괄 우사라
기획편집 정혜림 이슬기 김예인
디자인 BBABAM STUDIO

